

예능프로그램의 보조자막 오남용에 관한 연구

윤나라* · 강효순*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제작전공

A study of the subtitles abuse cases of entertainment programs

Na-Ra Yun*, Hyo-Soon Kang*,

*Broadcast Production Graduate School Of Culture Media YeWon Arts University

E-mail : s-_o-_o-_a@hanmail.net

요 약

‘미디어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미디어와의 접촉은 불가피하다 못해 필수불가결의 것이 되었다. 다양한 매스미디어 중에서 특히 TV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친숙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자막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드라마와 더불어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는 예능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은 가장 심각하다.

예능프로그램은 대체로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고 가족단위 시청자들이 많은 만큼 자막 노출에 따른 파장과 그에 따른 책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능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막의 쓰임을 통해 자막 사용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분석했다. 본 연구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자막의 오용을 줄이고 적정선의 노출을 통해 재미와 웃음 창출이라는 자막의 순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For people who live in 'the Media Age', contact with the media is indispensable. In various mass media, especially TV, it is the most familiar and influential media, because it is easy to access and used regardless of age or gender. However, in many recent TV programs the subtitles of the misuse and abuse problems are pointed out. In the popular entertainment programs, and dramas, the problems are the most serious. Many entertainment programs organized during prime time have largely a family audience. Thus, the effect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subtitles should be accompanied. The subtitles are an element that make up the entertainment program. In this study, the abuse cases of subtitle usage were analyzed. This study is aimed at maximizing the proper function of the subtitles, and creating fun and laughter through reducing misuses in various entertainment programs.

키워드

보조자막, 방송자막, 영상자막, 텔레비전자막, 자막 오남용

1. 서 론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1996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연출자 김영희 PD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됐다.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도입되기 시작한 자막은 정확히 들리지 않은 출연진의 발언을 전달해주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방송가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자막을 사용하지 않는 예능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보조수단’을 넘어 예능 프로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한 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1] MBC ‘세바퀴’의 박현석PD는 “재미있는 자막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100이라고 평가할 때 자막이 없다면 재미 요소가 반 이상 경감될 것이다.”라며 “자막은 연출자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를 어떻게 적절히 이용하느냐에 따라 재미 요소가 갈린다.”라고 설명했다.[2] 이수연(1999)은 코믹한 자막은 서술 장치를 드러내어 웃음을 제공하며 사회적 권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3] 하지만 ‘자막공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막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실련 미디어어워치팀(2001)은 자막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①자막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자막이 급증하고 있다. ②프로그램을 제작자 중심으로 이끌어가며 시청자들의 자율적인 시청행위를 방해한다. ③자막이 영상을 대체함으로써 영상매체로서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④효과음과 함께 사용되는 시선 집중용 자막들이 필요 이상의 긴장을 유발하거나 시청 흐름을 끊어 놓는다. ⑤반말이나 사적호칭, 비속어나 은어, 선정적인 언어, 타인의 신체나 인격, 능력을 비하시키는 언어 등 부적절한 언어나 맞춤법에 어긋난 언어가 문자 그대로 표현되어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방해한다.[4] 이렇게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 본 연구에서는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막 오남용 사례를 알아보고 자막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재미와 웃음 창출이라는 자막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본 론

1. 연구문제

- 1)자막 오남용 유형.
- 2)예능프로그램별 자막 오남용 사례.
- 3)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막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연구방법

- 1)자막 오남용 유형 분석
- 2)3사 주말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KBS 해피선데이-1박2일, MBC 무한도전,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별 자막 오남용에 관한 유형별 사례 분석.

3.연구결과

- 1)자막 오남용 유형
 - ①자막의 단순 오기(誤記)와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에 따른 잘못된 정보전달.
 - ②출연자들의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자막으로 내보내어 반말, 은어, 외계어, 비속어 및 저속한 표현들의 노출의 잦음.
 - ③제작진의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된 작위적인 설명을 통해 시청자의 불 권리 침해.
 - ④평균 4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간격으로 등

장하는 자막과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2)예능프로그램별 자막 오남용 사례

① KBS 해피선데이-1박2일



<도1> KBS 해피선데이 1박2일 2009
[육사시미-외래어 표현 사례]



<도2> KBS 해피선데이 1박2일 2009
[청령포를 청룡포로 잘못 표기한 사례]

② MBC 무한도전



<도3> MBC 무한도전 2007
[안녕뽀뽀리와옹-외계어 표현 사례]



<도4> MBC 무한도전 2009
[원펀치 파이프 강냉이-외래어 및 비속어 표현 사례]

③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도5>SBS 일요일이좋다 런닝맨 2011
[하로로, 유르스윌리스-외계어 표현 사례]



<도6>SBS 일요일이좋다 런닝맨 2011
[8.851km-잘못된 정보전달 사례]

3)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막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대상 프로그램의 시작 뒤 5분간 자막 등장 회수를 살펴본 결과 1분당 평균 19.5회의 자막이 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한도전'이 1분당 23.6회로 가장 많았으며 '해피 선데이'가 19.2회, '일요일이 좋다'가 15.8회였다. 자막 사용 빈도는 2006년 조사 당시 1분당 6.3~11.6회였는데, 2010년 조사에서는 평균 16.7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5]

세 프로그램의 통합 주간 시청률이 47.3%(2011년 09월 26일 ~ 2011년 10월 02일 방송 기준)[6]에 달하는 평균 50% 이내의 시청률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자막 오남용 사례는 매주 인터넷 화제의 검색어를 만들어 낼 만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능프로그램의 자막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와 개별방송사가 자막 사용에 대한 제재안을 내놓고 있다. 방통심의회가 방송언어의 발음 어휘와 표현 자막 등에 대한 개선지침을 정리한 '방송언어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KBS도 자체적으로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 막말과 비속어 사용, 자막 오용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7] 이와 같은 사회적, 자체적 개선책의 확충과 함께, 자막 교열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자체 및 외부의 2중 3중 철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사전 검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자막을 생성하는 근원인 출연자의 언행으로부터 대중적이고 올바른 표현을 위한 점검이 우선으로 필요하다.

III. 결 론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한류 돌풍으로 TV 프로그램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특히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회당 엄청난 자막이 쏟아지는 자막의 홍수시대에 지나치게 오락적인 요소만을 쫓다보면 애당초 추구했던 방송 보조자막으로써의 순기능을 해치게 될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 자막 오남용에 관한 문제점의 다각화된 분석과 더불어 자막 작성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면 재미와 웃음 창출이라는 자막의 순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7]장서윤, 연출의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무리한 표현은 삼가야-예능 프로그램 방송자막 남용, 언론현장, 2010.1
- [2] 박현석PD, 세바퀴, MBC
- [3] 이수연, 텔레비전 서술양식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코믹한 자막의 이해, 한국언론학보, 43권 3호, 182~212. 1999
- [4] 경실련 미디어워치, 자막을 중심으로 본 방송언어의 문제: 방송 3사 오락프로그램모니터분석, 2001
- [5] 연합뉴스, 오락프로 자막, 외국어 비속어 오자 넘친다, 2011.7.3
- [6] TNmS, 지상파 주간시청률, 2011.9